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기독교 영성교육

김 도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기독교 영성교육에 관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사조가 학습자들의 마음과 행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교육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해결책 모색을 시도한 연구이다. 감성주의, 자기중심주의, 상대주의에 빠져 있는 학습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편화된 인간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독교 영성교육을 제안한 것이다. 기독교 영성교육 연구는 영성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시도하였고, 삼위일체 신학에 근거한 통전적인 영성이해를 제시하였다. 이 이해를 토대로 하여 영성교육의 가능성을 제고해 보았으며, 영성훈련이라는 개념대신 영성교육이라는 개념의 정당성을 타진하였다. 그리고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본질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파편화되어가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영성교육의 본질을 파헤쳤고, 기독교 신학에 근거한 인간이해를 도모하였으며, 공동체를 향하여 거듭나게 하는 영성교육의 역할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영성교육의 세 가지 방법 즉,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을 고려한 영성교육 방법, 유념적 차원과 무념적 차원을 고려한 영성교육 방법, MBTI를 활용한 영성교육 방법을 다루었다. 이러한 영성교육을 적절히 조화시키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주제어: 포스트모더니즘, 영성, 기독교 영성교육, 파편화, 인간성 회복

시작하는 말

시대를 막론하고 영적인 존재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은 있어왔다. 물론 사람마다 그 갈망하는 영적 삶의 목적이 다 다르지만 말이다. 어떤 이는 근심걱정 다 잊고 살기 위하여, 또 다른 이는 초월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또 어떤 이는 좀 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또 어떤 이들은 삶 전체를 자신이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하여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변화무쌍한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그러한 갈망은 여전히 존재하는 듯하다. 어느덧 세대는 감성주의, 자기중심주의, 상대주의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깊이 빠지게 되어 이전 세대에 이성을 중시하고, 공동선(善)을 따르며, 절대권위에 순복하던 사조는 어느덧 옛 시대의 유물과도 같이 되어 가고 있다.¹⁾ 물론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조가 인류에게 주는 유익도 적지 않다. 이전에는 억눌렸던 개인의 창의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준에 얽매어 있던 젊은이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해방감을 만끽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보다는 자기 자신이 기준 만들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포스트모던 시대가 인류에게 주는 긍정적인 점도 적지 않으나 이와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성에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니 배움의 정신을 상실하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취사선택 하다 보니 철저한 자기중심적 사고로 일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며,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는 권위에 대한 반항의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세계화의 가속도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전통이 약화되는 탈전통화를 경험하게 되고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직접 경험뿐 아니라 매개된 경험을 겪도록 한다. 한지방의 경제적 운명이 세계 자본주의의 시장의 영향을 받듯이 일상생활이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권력에 의하여 구조화된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잠재력의 실현기회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전개될 사태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불안, 무력감, 존재의 번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한다.²⁾ 이러한 사조가 각 개인의 마음에 자리 잡다 보니 인간성 파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달리 서술하여 1970년대 이후 영성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20세기 후반의 문명이 크게 전환하고 있다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의식 속에서 인간의 자기 각성이라는 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됨을 성취하려는 세계사적인 정신 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³⁾

1) 철학자 료파르(Jean-Francois Lyotard)는 이러한 흐름을 큰 이야기의 부당함, 작은 이야기의 타당함으로 설명한다. 마단 사럽(Madan Sarup) 외, 『테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임현규 편역(서울: 인간사랑, 1992), 152-153쪽.

2) Anthony Giddens, *Runaway World How Globalisation Is Reshaping Our Lives*, 박찬욱 역, 『질주하는 세계』(서울: 생각의 나무, 2000), 23-24쪽.

3) 윤희중,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과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서울: 서광사, 1992), 16-19쪽.

이 시대의 사조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함의가 이토록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느끼는 듯이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많이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신뢰받는 기관 중의 하나인 갤럽의 보고에 의하면 21세기 비소설 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는 종교 내지는 영성 분야가 될 것이며 1987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영성 관련 도서의 성장률이 무려 82%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⁴⁾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성에 관한 수많은 서적과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신승환이 기술한 것처럼 포스트모던 시대에 다양한 영성추구 형태가 범람하는 이유는 “현대문화의 무의미함과 모든 것을 물화(物化)하는 가운데에서 느끼는 영적갈증과 목마름 때문이다. 인간은 초월적 존재이며 초월성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근대의 실체론(substance)적 문화는 이성 이외의 것 특히 초월성을 배제하였다. 이성이 주지 못하는 존재의 무의미함과 거기서 오는 공허함이 포스트모던적 영성의 터전인 것이다.”⁵⁾ 기독교계에는 헨리 나우엔(Henry Nouwen)과 리차드 포스터(Richard Foster) 같은 영성학계를 주도하는 학자이자 실천가들이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나우엔이 제시하는 삶과 신앙과의 통합의 문제, 지성적 능력과 감성적 능력의 일치의 문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연결의 문제 등은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삶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스터 역시 근간에는 레노바레(Renovaré) 운동⁶⁾을 통해 개신교의 많은 이들에게 영성 부흥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영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기에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첫째, 기독교 영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둘째, 인간성 회복을 위한 영성교육의 본질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I. 기독교 영성에 대한 논의

1.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정의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도 영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이미 오랫동안 추구되어 왔던 것처럼, 기독교에도 영성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 왔으며 나름

4) Michael Downey,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안성근 역, 『오늘의 기독교 영성이해』(서울: 은성, 2001), 21쪽.

5) 신승환, “현대문화에서의 영성론 연구”, 『하이데거 연구』 제15집(한국하이데거학회, 2006): 567-596, 574쪽.

6) <http://renovare.or.kr/> 참고. 라틴어로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로의 특성화된 정의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나, 또는 기독교 전통과 관련된 의미의 영성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상 ‘영성’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즉,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정의에 있어서 애매성과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애매성이라는 것은 “영성”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모호성이란 “영성”과 “비영성”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영성이란 개념을 정의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에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 일정한 신학적인 준거나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⁷⁾ 영성이라는 용어는 영육(body)이나 물질(material)과는 구분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또는 경건(piety), 금욕주의, 신비적 체험 등이 영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크리스천의 삶(Christian life)을 뜻하는 지극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⁸⁾ 이런 경우 영성이란 초월적인 삶 혹은 내면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내지 가능성을 의미하는 존재론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의 영성연구에 있어서는 영성의 개인적 차원의 측면, 즉 내면의 변화와 성품, 혹은 성향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시각이다. 즉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란 일반적으로 영혼의 성품, 성질, 혹은 성향을 가리키며, 라틴어 ‘spiritualitas’는 ‘비물질적 본질’ 혹은 ‘내적인 영적 본질’을 의미한다.⁹⁾ 기독교 전통에서 영(spirit)은 어원적으로 히브리어 루아흐(רוּחַ, ruach)와 헬라어 프뉴마(πνεῦμα, pneuma)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그 의미는 ‘호흡’ 또는 ‘바람’이다. 히브리어 루아흐는 인간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가능케 하는 것이다.¹⁰⁾ 프뉴마는 하나님과 예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하며 이것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모든 기독교인에게는 이 영이 존재하며 이 영에 이끌림을 받아 산다. 영성에 대한 많은 정의가 존재하지만 앨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의 정의는 앞에서 설명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조은하,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교육』(서울: 한들, 2004), 64-67쪽.

8) Gordon S. Wakefield, “Spirituality” in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ed) by Gordon S. Wakefield(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361-363쪽.

9) John S. Brubacher, *A History of Problems of Christian Education*(New York: McGraw Hill Company, 1966), p.308.

10) 정희숙, 『St. Augustinus의 영성교육론』,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285-304, 290쪽 참고.

기독교 영성은 진정으로 의미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탐구이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묶어주어 삶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경험이다.¹¹⁾(밑줄은 연구자의 것)

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핵심 초점은 기독교 영성이 존재에 대한 탐구라는 것과 삶의 총체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실제로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영성에 대한 신비주의적 체험일변도의 경향을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영성에 대한 추구는 본질적으로 신비와 체험적인 요소가 적지 않으나 신비와 경험에만 치우치는 것은 영성이 가진 속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개 이런 시각은 개인적인 영성추구에 연구를 제한하는 영성에 대한 미시적인 정의로서,

영성이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 형성되는 성품, 그리고 삶의 모습이 성경에 의거한 자기 성찰과 근면, 절제와 금욕 생활, 기도와 노동 등을 통하여, 성육신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며(에베소서 4:13),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베드로후서 1:4)로 변화되어, 성숙한 자아와 공활히 여기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활하며, 자기를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추구이다.¹²⁾

또 다른 영성에 대한 시각은 거시적인 것으로서 개인의 내면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삶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 투쟁이 벌어지는 사회, 더 나아가서는 지구의 생태계와 우주를 포함하는 영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띤다. 그러기에 소위 사회적 체계에 대한 변혁을 야기하는 집단적 혹은 총체적 영성, 지구와 우주의 조화와 전체적 균형과 보존 등에 관심을 두는 생태적 영성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은 좁게는 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어떤 사회적 체계 속에서 신음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며,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제반 행위와 그러한 삶의 양태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거시적 시각으로 영성을 본다면, 사회의 체계를 바로잡고, 지구와 우주의 생태적 환경 보존과 온 피조물의 조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삶이다. 이것을 기독교 교육적인 용어로 풀어 말하면, 거시적 영성은 조지 A. 코우(George Albert Coe)가 주창한 것처럼 ‘사회의 변혁’(transformation of society)을 꾀함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¹³⁾ 나 자신, 나의 가정, 나의 교회보다는

11) Alistar E. McGrath,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김덕천 역, 『기독교 영성 베이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5쪽.

12) 김도일·장신근, 『기독교 영성교육』(서울: 동연, 2009), 53쪽.

13) Coe는 종교교육의 목적을 논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Shall the primary purpose of religious education be to hand on a religion or to create a new world?” 물론 Coe는 후자 즉,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종교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George A. Coe, *Social Religious Education*, 김도일 역, 『종교교육 사회론』(서울: 그루터기, 2006) 참고.

우리 민족, 사회, 국가, 지구촌의 보존과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일종의 ‘공적인’(public) 삶에 우선권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¹⁴⁾

그러나 개인적 혹은 사회적, 내면적 혹은 외면적이라는 차원이 서로 대립되거나 이원화되는 것이 아닌 통전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기독교 영성은 미시적 혹은 거시적, 개인적 혹은 공적이라는 시각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되는 삼위일체 신학에 근거한 영성이해가 가장 신학적으로 적합하며 실제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다. 삼위일체 신학에 입각한 통전적 시각으로 내리는 영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성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거룩한 성품을 추구함으로써,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추구의 과정 가운데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외현적으로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늘 상기하는 가운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신앙공동체의 안녕과 사회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조화롭게 이루어 드리는지와 공적인 기관인 교회가 어떻게 활동하여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갖고, 신앙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 신앙인이 작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크게는 사회와 지구촌 전반의 상황을 깨어 있는 가운데 직시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사명을 찾아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영성은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신앙공동체의 번영과 존재목적의 성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회와 지구촌의 모든 생태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잘못된 사회체계를 바로잡는 데 주력하며, 망가져 가는 생태환경의 복원과 조화를 위하여 연합하여 함께 존재하며, 일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영성에 대한 통전적 정의¹⁶⁾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성교육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의문은 ‘과연 영성을 가르칠 수 있나?’와 ‘만약에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같은 근본적인 질문일 것이다.

14) 김도일·장신근, 앞의 책, 52쪽.

15) Ibid., 54-55쪽. 샤르텐(Theihard de Chardin)에 의하면 영성은 “우주생명 그 자체의 최고의 꽃핍이요 승화된 최종의 모습이며 우주생명의 본질적인 마지막 종극점이다.……[또한] 영성은 순결, 사랑, 자기부정과 일치한다.” Robert L. Faricy, S. J., *Theihard de Chardin's Theology of the World*(New York: Sheed and Ward, 1966), pp.173-174. 이숙중, 『인간교육에서 영성교육의 중요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1집(한국기독교학회, 2001.9): 285-312, 295쪽에서 재인용.

16) 기독교영성을 통전적으로 다루어야 함의 중요성을 역설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참고하라. Jonathan Edwards, *The Religious Affection*, 서문강 역,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서울: 지평서원, 1997).

2. 영성을 가르칠 수 있나?

1) 영성은 최종 결과물인가 노상의 과정물인가?

어떤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그 지식을 따라 성실하게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많은 교리적,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하여도 실천적인 삶을 영위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발간된 나우엔의 유작 『영성수업』에 나오는 아래의 이야기가 그러한 경우를 해학적(諧謔的)으로 표현해 주었다.

어느 머나먼 섬에 세 명의 러시아 수사가 살고 있었다. 생전 아무도 그 곳에 간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주교가 심방을 하기로 했다. 그가 도착해서 보니 수사들은 주기도문도 몰랐다. 그래서 주교는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쳐서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는 자기시의 목회 사역에 만족을 느끼며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배가 섬을 떠나서 다시 공해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세 은자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사실 그들은 배를 쫓아서 뛰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다 와서 물었다. “사랑하는 신부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주교는 눈앞의 광경에 어안이 빙빙 하여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럼 그대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들은 대답했다. “그야 그냥 이렇게 아뢰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도 셋이고 하나님도 세 분이시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교는 그들의 거룩함과 단순성에 탄복하여 “그대들의 땅으로 돌아가 평안히 거하라”고 말했다.¹⁷⁾

영성은 영혼의 성품이며 총체적인 삶의 경험인데 과연 영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¹⁸⁾ 영성은 일종의 도그마(dogma)가 아니다. 그리고 지식이 영성을 담보해 주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는 많은 지식이 없어도 단순한 삶의 양태 속에서 순수하게 믿고 실천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습득되어지는 것이 영성일 수 있으며, 때로 많은 지식과 도그마를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있다 할 지라도 다분히 피상적이고 무능력한 영성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영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 과연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교육의 영역에서 늘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며 이것에 대한 답은 학자마다 가지고 있는 신학적 기초, 교육적 기초 중 인간관 및 교육의 목표 및 목적에 대한 사상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이견들이 제안되어 왔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하여 비교적 낭만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자유주의 기독교교육학자들은 대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죄성(sinfulness)을

17) 이 비유는 본래 톨스토이의 것이다. 나우엔의 *The Road to Daybreak: A Spiritual Journey*, 성찬성 역, 『새벽으로 가는 길』(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8)에 인용된 것으로 Henry Nouwen, *Spiritual Direction: Wisdom for the Long Walk of Faith*, 윤종석 역, 『영성수업』(서울: 두란노, 2007), 80-81쪽에 재인용된 것이다.

18) 이러한 질문은 일찍이 “Can faith be taught?”와 같은 의문형 문장으로 Coe가 질문한 바 있다.

더 강조하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대개 신앙은 전적으로 은혜에 기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인간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존 듀이(John Dewey)와 교육적 신념의 맥을 같이 하는 조지 A. 코우(George A. Coe)가 전자에 해당하고 사라 리틀(Sara Little)과 교육신학적 맥을 같이 하는 리차드 아스머(Richard Osmer)와 같은 학자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결국은 위의 양자적 입장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사가 영성 그 자체를 가르쳐서 얻게 하거나 줄 수는 없어도 영성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사모케 하고, ‘영성적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학습자를 도와줄 수는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성교육은 영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영성(적 삶을 사는 방법)을 도와주고 영성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보는 편이 더 논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논거로 보면 영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최종적 결과물(product or being)로서의 영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process or becoming)으로서의 영성적 삶을 이끌어 가도록 돕는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교사는 교육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학생들이 영성이라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 즉 초월적이면서 신비적인 경험과 은총적 차원의 신앙적 경험들을 수용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존재변화들이 구체적 삶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실천의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⁹⁾ 이러한 논의에 대한 주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학자들을 보면 먼저 영성가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교육이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이란 전인 즉, 통전적인 인간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²⁰⁾ 이러한 머튼의 논의는 본질적으로 교육은 영성이라는 단어와 본질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교육학자 파커 팔머(Parker J. Palmer) 또한 팔머는 교육을 영적 여정 즉, Education as Spiritual Journey로 묘사한다. 이것은 달리 서술하여 여정과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정의한 것이다.²¹⁾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영성교육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가운데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적 고백과 기독교적 삶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그리하여 개인적 신앙 정체성과 신앙적 체험이 공동체의 삶과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영성교육은 잘못된 현대 교육의 방향과 목적, 실추된 교육의 위상, 우리의

19) Bill J. Leonard(ed.), *Becoming Christian*(Westminster: John Knox, 1990), 9-10쪽.

20) 이 인용은 Thomas Merton이 Mary Declan Martin에게 보낸 편지(May 1, 1968)에서 발췌한 것이다. 김도일·장신근, 앞의 책, 165쪽에서 재인용.

21)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Spiritual Journey*(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3). 이 책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제하에 이종태 역으로 IVP에서 역간되었다(2000).

단절된 대화관계를 재정립하고 재결합시키는 하나의 계기 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다.²²⁾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영성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만들어져가는 것이다.

2) 영성훈련인가 영성교육인가?

오랜 세월 동안 영성지도(spiritual direction)에 대하여 논의할 때 영성교육(education for spirituality)이라는 용어보다는 영성훈련(spiritual training/exercise)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강희천은 ‘훈련’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교사가 의도하는 “계발되어야 할 능력의 양태나 실현되어야 할 결과”²³⁾를 겨냥하는 교사중심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개념정리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훈련에 대하여 토마스 그린(Thomas Green)은 언급하면서 주입(indoctrinating)과 비교한 바 있다. 주입이 대개 신념을 형성하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사용되는 반면 훈련은 대개 행위를 형성하고 가꾸어나가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수방법이라는 것이다.²⁴⁾ 영성지도와 관련하여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축소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성은 행동의 변화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의 습관 혹은 성향(dispositions)을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영성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물론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학습자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라틴어, educare) 것으로서, 저마다 다른 학습자들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계발에 힘쓰는 것으로 훈련이 교사중심적이라면 교육은 다분히 학생중심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조은하와 장 라플라스(Jean Laplace)가 역설했던 것처럼,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원하는 행위의 최종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훈련이라면, 학생의 잠재력, 개성, 학습능력에 맞추어 학생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논점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는 영성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영성교육으로 인간성 회복의 채널을 삼고자 하는 것이다.²⁵⁾

22) 정희숙, 앞의 글, 285~304, 287쪽. 정희숙은 영성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영성은 삶의 궁극적인 힘과 의미의 원천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체험하고 경험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즉 영성은 인간의 내적 감정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통합성과 일관성에 도 관계된 것이다.” Ibid., 290쪽. 영성을 삶의 궁극적인 힘과 의미의 원천이라고 보았기에 정희숙은 영성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제문제, 인간사회의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23)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44쪽.

24) Thomas Green, *The Activities of Teaching*(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1), p.33.

25) 조은하, 『현대적 의미의 기독교 영성교육』, 『기독교교육정보』 제7집(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3.10): 341-361, 355쪽. 라플라스도 영성지도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피지도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

Ⅱ. 인간성 회복을 위한 영성교육의 본질과 방법

1. 파편화되어 상실된 인간성²⁶⁾에 대한 고찰

오늘날의 인간성이 파편화되었다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가정인가? 무슨 근거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은 본 연구의 정곡을 찌르는 핵심적 질문이다. 시작하는 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전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의 사고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과연 어떤 변화가 그런 것들인지를 아래의 표를 보자.

〈표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비교²⁷⁾

모더니즘 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주지주의 Intellectualism	감성주의 Emotionalism
개인주의 Individualism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Self-centeredness
객관적 인식론 Objective Epistemology	주관적 인식론 Subjective Epistemology
권위인정 Authority Acknowledged	권위부정 Authority Denied
일원주의 Monoism	다원주의/상대주의 Pluralism ²⁸⁾ /Relativism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21세기는 감성주의,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주관적 인식론, 권위부정, 다원주의/상대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학습자들의 마음에도 학습에 방해가 되는 적지 않은 경향들이 생겨나게 된 현실이다. 예컨대 배움의 정신의 상실, 파편화, 절대진리 수용에 대한 거부감과 같은 현상들이 학습자들에게 사회화되어 그들의 내면 삶을 지배하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하여 ‘파편화된 인간성’을 논하고자 한다. 파편화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파편화(破片化)를 영어로 표현하면 fragmentation이라는

면서 영성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조은하는 밝히고 있다. Jean Laplace, S.J., *Preparing for Spiritual Direction* (NP: Francis Herald, 1975), pp.24-43.

26)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 참고: 김도일, 「파편화된 인간성을 통합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21집(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9.6), 19-59쪽.

27) Doil Kim, “A Wholistic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Approach to Postmodern Challenges Through the Insights of Leonard Sweet’s E.P.I.C. Model”,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5, May 2005, p.205.

28) 다원주의와 유사한 단어를 다양성(diversity, multiplicity, variety) 혹은 비균일성(heterogeneity)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다원주의에 대한 반대어는 균일성, 동질성(homogeneity; sameness, similarity, equality, homogeneousness, consistency, regularity) 정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http://encarta.msn.com/thesaurus>.

단어가 되는데 ‘깨어져 조각이 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성(人間性, humanity)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본질 및 본성이다. 그러므로 파편화된 인간성을 사람이란 의미는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깨어져 조각이 나 인간답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 일찍이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도 얘기한 바 있거니와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왜곡된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과 삶을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로운 섬과 같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에서는 그러한 고독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사라 리틀도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현대인은 마음의 실향(homelessness of mind) 상태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²⁹⁾ 이 모든 분석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병 즉, ‘파편화되어 상실된 인간성 병’을 앓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편화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영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성교육이 지향하는 본질적 지향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본질적 지향성이란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 영성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이해는 바로 변화가 능한 존재로서의 과정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육체와 정신과 감성과 영성이 통합되는 통전적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영성교육은 개인적 차원이 관심을 넘어서서 개인의 변화와 실존적 결단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짐으로서 공동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연대성과 사회성을 지녔다라는 점이다.

2. 인간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 영성교육의 본질과 방법

1) 기독교 영성교육의 본질

(1) 인간 이해와 영성교육의 가능성

파편화되어 상실된 인간성을 갖게 된 포스트모던 사람들에게 기독교 영성교육이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인간이해에 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인간을 이미 만들어진 존재로 보지 않고 만들어져 가는 끊임없는 ‘becoming’의 존재로 보고 교육하기 때문이다. 달리 서술하여 인간이란 변화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육체와 정신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진 존재, 즉 통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³⁰⁾ 인간을 생물학적(biological) 존재로만 보지 않고, 철학적(philosophical) 존재 즉, 이성적 기능을 갖고 사고하는 존재이며 논리적 과학적 사고를 하는 존재로도 보며, 신학적(theological) 존재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지닌 존재로 본다. 이정석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성(notitia)과 감성

29) Sara Little, *To Set One's Heart*(Atlanta: John Knox Press, 1983)의 서문(preface) 참고.

30) Tilden Edwards, *Spiritual Director, Spiritual Companion*(New York: Paulist Press, 2001), p.1.

(assensus)과 의지(fiducia)에 상응하는 전인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의 성장은 세 기능의 종합적 발전과 강화가 동반되어야 일어나는 종합적인 사건”³¹⁾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본받고 연습하여 온전히 체화될 때 완성되며, 이러한 노력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성은 날마다 개발되고 성숙해진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기독교 영성은 단순히 신비주의적이지도, 낭만주의적이지도 않은 영성을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며(마가복음 8:34),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³²⁾ 자기 부정의 영성, 성장과 성화(sanctification)를 추구하는 영성이기에 기독교 영성교육이 파편화되어 상실된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교육에서 인간이해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위대하나 비참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³³⁾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인간은 한낱 로봇에 불과하여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도 아니요, 온전히 자율적으로 선택한 의지를 발동하여 늘 바람직한 생각과 행동만을 일삼는 존재도 아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분을 닮으려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선행되는 겸손한 존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 타자가 여기서는 교육자이며 비록 교육자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로되 학생을 도와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다.

(2) 공동체³⁴⁾를 향하여 새로 거듭나게 하는 영성교육

진술한 것처럼, 삼위일체신학에 입각한 통전적 영성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거룩한 성품을 추구함으로써,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추구의 과정 가운데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외현적으로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늘 상기하는 가운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³⁵⁾ 신앙공동체의 안녕과 사회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조화롭게 이루어 드리는

31) 이정석, “영성이란 무엇인가”, <http://www.jsrhee.com/WR/spirituality.htm> 참고.

32) 예수는 마가복음 8:34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한 예수를 주인으로 따르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31에서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3) 일찍이 성서학자인 Donald Bloesch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다. Donald Bloesch,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Vol. 1, God, Authority, Salvation*(New York: Harper & Row, 1979), p.88.

34) 신앙공동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도일,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참고.

35) Tilden Edwards, *Spiritual Director, Spiritual Companion*(New York: Paulist Press, 2001), p.61.

지와 공적인 기관인 교회가 어떻게 활동하여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갖고, 신앙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 신앙인이 작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크게는 사회와 지구촌 전반의 상황을 깨어 있는 가운데 직시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사명을 찾아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영성은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신앙공동체의 번영과 존재목적의 성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회와 지구촌의 모든 생태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잘못된 사회체계를 바로잡는 데 주력하며, 망가져 가는 생태환경의 복원과 조화를 위하여 연합하여 함께 존재하며, 일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직시하는 가운데 영성교육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인식하고 행동케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또 나름대로는 사회에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턱없이 낮은 이유는 하나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초점이 너무도 개인화되어 있었고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점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영성교육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데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public area)에도 깊은 관심을 쏟는 공공 영성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관심을 갖아야 하는 것은 작게는 신앙공동체인 교회이고, 크게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구촌이다. 인간은 함께 살고, 함께 배우고, 함께 창작할(to live, to learn, and to create together) 수 있는 역량(capacity)을 소유한 존재³⁶⁾이므로 그러한 역량을 공동체를 위하여 수행해야 한다. 영성이 가진 본질적인 특징이 공동체성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영성은 삼위일체적이며 삼위일체³⁷⁾신학이 가진 중요한 특징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나 일체라는 점이다. 일체라는 의미를 다루면서 상호침투와 내주를 뜻하는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라는 단어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성부 하나님 없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없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없는 성부 또는 성자 하나님을 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령

36) Lawrence O. Richards, *Christian Education: Seeking to Become Like Jesus Christ*(MI: Ministry Resources Library, 1975), p.15.

37)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빛 중의 빛이라고 고백한다.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사이의 동일본질(homousios)을 주장한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의 신성을 주장하면서, 성령은 주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5세기의 칼케돈 공의회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된다. una substantia tres personae(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 그리고 세 위격 사이의 교류(perichoresis)를 주장한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세 위격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하며 서로의 안에 내주한다. perichoresis라는 헬라어는 라틴어로는 circuminsessio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circuminsessio는 역동적 침투를 뜻하는 incedere를 가리키면서 또한 안식 안에 있는 내주(insedere)의 의미도 포함한다. Jürgen Moltmann, *Wissenschaft und Weisheit*, 김균진 역, 『과학과 지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위하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82쪽.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없을 수 없으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이 세 분이 늘 함께 생각하고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러한 예를 창세기 1:26의 인간 창조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신승환도 이러한 영성의 공동체를 향한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영성은 공동체적 성격을 부정하는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올바른 영성은 사랑과 공동체의 더불어 살아가는 원리에 상응할 때 부차적으로 입증될 것이다. 그 말은 타자의 존재근거를 부정하거나 인간의 삶을 드높이지 못하는 영성은 잘못된 영성이라는 뜻이다. 영성은 도덕과 윤리의 단계를 넘어 인간의 존재성과 함께 한다.”³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본래적 영성을 회복하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온전한 사회성을 회복하는 영성, 온전한 협력정신을 회복하는 영성, 온전한 상호내주, 상호침투의 정신을 회복하여 ‘나와 너’의 정신을 갖게 되고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역설했던 진정 ‘타자를 위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로서 공동체를 향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존재,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2) 인간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 영성교육 방법의 세 가지 유형

(1)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을 고려한 영성교육 방법

영성교육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 수행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교사가 중요시해야 할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 차원이다. 이 둘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어느 하나를 무시하고 나면 온전한 영성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리차드 포스터가 제시하는 내면의 수련들(묵상, 기도, 금식, 공부)과 외면의 수련들(단순화, 고독, 순종, 섬김), 그리고 공동수련들(고백, 예배, 인도, 경축)과 같은 것은 이러한 양자를 잘 고려한 균형잡힌 영성교육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³⁹⁾

(2) 유념적 차원과 무념적 차원을 고려한 영성교육 방법

유념적 차원을 고려할 때 영성교육의 방법 중의 하나는 소위 명상법이다. 이는 주로 “어거스틴과 그레고리 대제와 같은 서방교회에서 많이 채용되었던 방법으로 자기비움과 침묵 가운데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상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명상법”이다.⁴⁰⁾ 그리고 무념적 차원을 고려하는 영성교육의 방법은 자아를 비우는 영

38) 신승환, 앞의 글, 582쪽.

39) Richard J. Foster, *Celebration of Discipline: the Path to Spiritual Growth*, 편집부 역, 『영적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서울: 보이스사, 1991)에서 핵심 요약.

성교육 방법으로서 대개는 언어기도로 시작하여 점차 무언의 기도로, 간구의 형태에서 경배의 형태로, 자아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험을 획득하게 하는 교육방법이다.⁴¹⁾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위 성독(聖讀)으로 부르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로 볼 수 있다. 렉시오 디비나는 고대 수도자들이 행했던 묵상 수행으로 성서를 머리만이 아닌 온 마음으로 읽고, 그것을 기억 속에 간직하여 하루의 다른 시간들 안에서 끊임없이 되뇌는 수련방법이다. 이것을 교육할 때 교사는 수련생들로 하여금 먼저 성서 말씀을 찬찬히 정독하게 돕고(lectio: 독서), 그 말씀의 의미 등을 곰곰이 되새겨보며(meditatio: 묵상), 기도하고(oratio: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합일의 경지에 들어가게(contemplatio: 관상) 격려하는 영성교육 방법이다.

(3) MBTI를 활용한 영성교육 방법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으로 부르는데 칼 융(Karl Jung)의 성격유형 연구를 토대로 하여 브릭스(Katharine Briggs)와 마이어(Isabel Myers)가 만든 성격유형 검사방법이다. 융은 인간의 성격 형태를 내향적-외향적인 사람(introvert-extrovert), 직관적-감각적인 사람(intuitive-sensing), 감성적-지적인 사람(feeling-thinking), 그리고 이해력이 높은 사람-판단력이 높은 사람(perceiving-judging)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것에 근거하여 MBTI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외향성(E)-내향성(I), 감각기능(S)-직관기능(N), 사고형(T)-감정형(F), 판단태도(J)-인식태도(P) 등 네 쌍으로 이루어진 선호도를 기초로 해서 16가지의 성격으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어떤 이가 성격검사를 통하여 외향성(E), 감각기능(S), 사고형(T), 판단태도(J)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 이의 성격유형은 ESTJ 유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⁴²⁾ 일반적으로 MBTI는 개인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성격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유익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영성교육의 중요한 도구로써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실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Multiple-Intelligence Theory)도 영성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단 MBTI를 활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예컨대 MBTI를 활용한 개인 기도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 내향적인 성격: 자신 안에서의 기도-복합적인, 확증하지 않는, 개인기도
- ◇ 외향적인 성격: 공개기도-외적인 방향, 공동체기도
- ◆ 직관적인 성격: 소망의 기도-가능성, 영적 연합, 묵상

40) Urban Holmes, *Spirituality for Ministry*, 김희식 외 역, 『목회와 영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김도일·장신근, 앞의 책, 206-207쪽에서 재인용.

41) Ibid.

42) Katharine Briggs, Isabel Myers, *Introduction to Type Series(MBTI)*, 정명진 역, 『성격의 재발견: 마이어스 브릭스(Myers-Briggs) 성격유형 탐구』(서울: 부글북스, 2008) 참고.

- ◇ 감각적인 성격: 실제적인 기도—환경과의 접촉, 현실적 방향
- ◆ 감상적인 성격: 감정적인 기도—감정의 흐름, 개인적인 수용
- ◇ 지적인 성격: 이성적인 기도—지성에 의한 논리적 접근, 진리추구
- ◆ 판단하는 성격: 규칙적인 기도—모호하지 않음, 구조적인 것을 추구
- ◇ 이해하는 성격: 생기 있는 기도—모호함 수용, 다양한 접근 허용, 열광적⁴³⁾

한 개인의 성격유형을 제대로 이해하여 그에 맞는 영성교육 방법을 제시하여 주는 것은 영성교육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영성교육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만을 다루기로 한다.

마치는 말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더욱이 영성에 대한 교육적 도모를 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깊은 영성을 갖춘 교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런 경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능하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신약성서 기자 중의 하나인 야고보서는 경고하고 있다. 실로 교사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진리와 피교육자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팔머가 말한 것처럼 “겸손은 타자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타자에게 순종하게 한다.”⁴⁴⁾ 겸손과 더불어 자신이 확신에 거할 수 있는 믿음도 소유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 자신이 믿는 믿음을 고백(profess)할 수 있는 교사(교수)가 되어야 한다고 팔머는 말하였다.⁴⁵⁾ 기도와 학문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게 될 때 자신의 온전한 영성이 형성되어가는 교사가 될 때 비로소 맡겨진 가르침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처럼 변화무쌍한 세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급행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밖을 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늘 불안에 떨면서 아무에게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냐고 물어볼 친구도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묵마르게 찾고 있는 포스트모던 사람들에게 기독교 영성교육은 함께 진리를 탐구하며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결코 피상적인 감상주의만 빠져 있지 않고 지식 탐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자기

43)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송원준 역, 『기독교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서울: 디모테, 2002), 533쪽. 김도일·장신근, 앞의 책, 109쪽에서 재인용.

44)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Spiritual Journey*, 이종태 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서울: IVP, 2000), 157쪽.

45) Ibid., 160-162쪽.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기도의 초점 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며, 각 개인에게 본래 주어진 성향을 잘 연구하여 가장 적합한 영성교육의 방법을 취한다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온전하고 통전적인 인간성 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도일.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_____. 「과편화된 인간성을 통합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21집.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9.6.
- 김도일·장신근. 『기독교 영성교육』. 서울: 동연. 2009.
- 신승환. 「현대문화에서의 영성론 연구」. 『하이데거 연구』 제15집. 한국하이데거학회. 2006.
- 윤평중.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서울: 서광사. 1992.
- 이숙중. 「인간교육에서 영성교육의 중요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1집. 한국기독교학회. 2001.
- 이정석. “영성이란 무엇인가”, <http://www.jsrhee.com/WR/spirituality.htm>.
- 정희숙. 「St. Augustinus의 영성교육론」.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조은하.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들. 2004.
- _____. 「현대적 의미의 기독교 영성교육」. 『기독교교육정보』 제7집.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3.
- Bloesch, Donald.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Vol. 1. God, Authority, Salvation*. New York: Harper & Row. 1979.
- Boa, Kenneth D. *Conformed to His Image*. 송원준 역. 『기독교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서울: 디모데. 2002.
- Brubacher, John S. *A History of Problems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cGraw Hill Company. 1966.
- Briggs, Katharine and Isabel Myers. *Introduction to Type Series(MBTI)*. 정명진 역. 『성격의 재발견: 마이애스 브릭스(Myers-Briggs) 성격유형 탐구』. 서울: 부글북스. 2008.
- Coe, George A. *Social Religious Education*. 김도일 역. 『종교교육 사회론』. 서울: 그루터기. 2006.
- Downey, Michael.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안성근 역. 『오늘의 기독교 영성이 해』. 서울: 은성. 2001.
- Edwards, Jonathan. *The Religious Affection*. 서문강 역.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 서울: 지평서원. 1997.
- Edwards, Tilden. *Spiritual Director, Spiritual Companion*. New York: Paulist Press. 2001.
- Faricy, Robert L. S. J. *Theihard de Chardin's Theology of the World*. New York: Sheed and Ward. 1966.
- Foster, Richard J. *Celebration of Discipline: the Path to Spiritual Growth*. 편집부 역. 『영적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서울: 보이스사. 1991.
- Giddens, Anthony. *Runaway World How Globalisation Is Reshaping Our Lives*. 박찬욱 역. 『질주하는 세계』. 서울: 생각의 나무. 2000.
- Green, Thomas. *The Activities of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1971.
- Holmes, Urban. *Spirituality for Ministry*. 김외식 외 역. 『목회와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Kim, Doil. "A Wholistic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Approach to Postmodern Challenges Through the Insights of Leonard Sweet's E.P.I.C. Model".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 5. May 2005.
- Laplace, Jean. S. J. *Preparing for Spiritual Direction*. NP: Francis Herald. 1975.
- Leonard, Bill J.(ed.). *Becoming Christian*. Westminster: John Knox. 1990.
- Little, Sara. *To Set One's Heart*. Atlanta: John Knox Press. 1983.
- McGrath, Alister E.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김덕천 역. 『기독교 영성 베이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Moltmann, Jürgen. *Wissenschaft und Weisheit*. 김균진 역. 『과학과 지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위하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Nouwen, Henry. *Spiritual Direction: Wisdom for the Long Walk of Faith*. 윤종석 역. 『영성수업』, 서울: 두란노. 2007.
- _____. *The Road to Daybreak: A Spiritual Journey*. 성찬성 역. 『새벽으로 가는 길』.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8.
- Palmer, Parker J.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Spiritual Journey*. 이종태 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2000.
- Richards, Lawrence O. *Christian Education: Seeking to Become Like Jesus Christ*. MI: Ministry Resources Library. 1975.
- Sarup, Madan et al. 임현규 편역.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인간사랑. 1992.
- Wakefield, Gordon S. 'Spirituality' in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ed), by Gordon S. Wakefiel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 <http://encarta.msn.com>.
- <http://renovare.or.kr>.

원고접수: 2010년 1월 15일 1차심사: 1월 26일 게재승인일: 2월 5일

연구자 소개: 김도일

- ① 전공: 기독교교육학 / 소속: 장로회신학대학교
 - ② 관심영역: 기독교교육사상, 영성교육
 - ③ 주요논저: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저), 기독교적 양육(역저),
생명을 위한 교육(역저) 외
 - ④ E-mail: doilkim@pcts.ac.kr
-

Abstract

Christian Spirituality Education for the Renewal of Humanity

Kim, Doil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is about Education for Christian Spirituality with a special focus on the renewal of humanity. It is seeking a solution as to how and what to prepare in the face of enormous influence of the postmodernism which seems to grab the minds of today's people. The traps of extreme emotionalism, self-centeredness, and relativism have caused people to become more fragmented beings than ever before. An extreme individualism became the hallmark of postmodernism and 'if something works for me, that is a truth for me' are kinds of philosophy people of this era seem to possess. Paradoxically, postmodern people yearn for meaning of life and answers to questions they cannot solve by themselves. Thus in order to provide an answer to questions, an education for Christian spirituality is suggested here in this paper. Therefore, the relevant interpretation of spirituality is attempted and the theology being employed is a holistic trinitarian interpretation of spirituality. In this paper, the term spiritual education is used rather than spiritual training in order to promote "becoming nature" of spirituality. Then the paper suggests the essence of education of Christian spirituality is the hope that education for Christian spirituality can renew and enhance the genuine humanity. In the process of doing so, a double edge concept of human nature will be introduced which has great potential on the one hand and is of impossible sinfulness (I don't understand the phrase impossible sinfulness) on the other, according to the reformer's theology. Also, the function of Christian spirituality helps people to work for the betterment of the faith community. (I don't understand what you are trying to convey with the previous sentence) Finally, three spiritual education methods are provided as follows: a spiritual education method that is based both on the individual and communal dimensions; a spiritual method that is based on both apophetic and kataphetic dimensions; a spiritual education method that utilizes the MBTI analysis of each individual. If we succeed in

implementing above spiritual education in harmony, hopefully a fragmented humanity can surely be restored and renewed, although it can hardly be perfected.

Key words: postmodernism, fragmentation, spirituality, Christian spirituality education, renewal of humanity.